

10
10 土木行政法 (토목 행정법)

이 책은 1939년 조선총독부에 근무 하던
土木事務官 (토목 사무관) 坂本 崇一 (사카모토
가이찌) 씨의 저작이다 식민지 시대 甲寅의
조선의 건설 (토목) 법령은 거의 이 시점에서
나해 이루어 졌다 朝鮮土地收用令 (조선
토지 수용령 1911) 朝鮮河川令 (조선 하천령)^{1926년}
公用水田 埋沒令 (공수수면 매립령 1923년)
土地区域整理事業令 (토지구획 정리 사업령)

朝鮮道廳令 (조선 도령령 1938) 및 朝鮮市街
地劃令 (조선 시가지 계획령 1934) 등이 주종
이다

당시 조선 총독부에는 행정관이나 기술
자를 뽑으려고 우수한 사립들이 많았지
라. 매년 졸업 시즌이 되면 東京帝國
大學 (동경 제국 대학)에는 求人 (구인) 광고가
나오는 데 일본 정부의 인기 부처인
大藏省 (재무성) 外務省 (외무성) 과 內務省
(내무성) 을 제외 하려는 조선 총독부가 南滿

卍 鐵道株或會社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조사

부 다음으로 인기 있는 곳이었다 한다

당시 조선 총독부는 2번만 근무하면

1년간 세계일주 여행 등 허락 한다

바탕에 많은 우수 학생 등이 조선총독

부를 지원 했기 때문이란 기록도 있다

당시 조선 총독부 ~~대만총독부~~ ^{법적 지원} 天皇(천황)

지속이 있었으므로 天座(장관) 등의 지시를

받지 않았고 조선총독은 대만총독

과는 달리 법률 제정권(制令權)이 있었다

그래서 ~~한편(내지)~~ 일본에 적용하는 ~~것~~ 법은 ~~법~~ 이란
이름이 붙지만 조선 총독이 만든 법은 ~~이름~~ ~~등~~
금(鎭) 이란 했지 朝鮮民事令 (조선민사령)
이니 朝鮮河川令 (조선하천령) 하는 것은
일르 하는 예이유에서였다

坂本 (사카모토) 사무관이 기초한 건설법
규는 일본에서의 경험 등을 대-로 했기
때문에 동종의 일본의 법보다는 선진적
인 요소가 많았지 이를 해명 조선시가지
계획령은 일본 법에 있는 都市計畵委員

5
순(도시계획위원회)

선치게

제정

함으로서 도시

계획에 있어서의 민간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을뿐 아니라 양본서는 분리되어

있던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 함으

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하기로 하였다

이 바뀌게 된 하천법(하천법)에서는 하천

의 소유를 양본은 無主物(무주물)이라 규

정하는데 반해 조서는 국유로 규정 했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하천법(하천법)에서

소유권에 대한 관습등은 부각 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이론바 夫役(부역) 제도는 王朝
 (왕조) 時代 부터 이어져 오긴 했지만 석연지
 시대 조선 충목부는 이론 제도 황한 느낌이
 있다 특히 노론 사설에 많이 활동했는데
 그 당시 통계에 따르면 연간 400만명이상이
 6세 노역인 부역에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 책은 석연지 시대 우리 나라의
 封建 制度 變遷 研究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 업
 은 귀중한 자료이다